

위안부 할머니도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주말 전국서 집회

“박정희 정권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로 나라 팔아먹은 꼴”

5일 광주 금남로서 촛불대회...정오 경적시위·서명운동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주말집회가 5일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지난 주말 1차 집회에서 분출한 ‘촛불 민심’이 한 주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광주·전남지역 70여 단체가 함께하는 ‘국정농단 헌정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가칭)’는 오는 5일 오후 6시 광주

시 동구 금남로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광주시국 촛불대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또 5일 정오 1분간 경적을 울리는 경적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 현수막 달기 등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여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는 주말인 5일 오후 4시 서

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문화제를 연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주말 촛불집회에는 애초 경찰이 예상한 4천명을 훨씬 웃돈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2만명)이 참가했다. 주최 단체들과 무관한 일반 시민들까지 대통령 비판 여론에 동조해 거리로 몰려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번주 내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고, ‘비선 실세’ 의혹을 뒷받침할 정황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5일 집회는 지

난주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9일째 이어진 ‘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동참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당한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단체와 김복동(90·김원옥(88)·안점순(88) 할머니는 3일 오전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 앞 시국선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대를 이어 역사를 팔아먹은 꼴이다”며 박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전국여성연대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40여 여성단체도 이날 정오 청와대 인근 정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진보 성향 여성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당장 하야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최대 노동자 조직인 한국노총은 3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능력이 없는 정권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 성주 성지 인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원불교계 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대학가 시국선언도 이어져 건국대 교수 116명과 중앙대 교수 192명, 동국대 교수 155명은 박 대통령 퇴진·거국내각 구성 등을 촉구했다.

/김경민기자 kki@연합뉴스

최순실 조카 장시호 출국 금지 본격 수사

특수본, 문체부·강원도 예산집행내역 등 분석

검찰이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조카 장시호(37·개명 전 장유진)씨를 출국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는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동계스포츠 분야 각종 이권을 쥔다는 의혹을 산다. 검찰 수사가 최씨 일가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장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인 등록지인 강원도로부터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받아 분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2년새 장씨가 사업 형식을 빌어 스포츠 분야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작년 6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 한국동계스포츠연맹센터가 대표적이다. 장씨는 센터 설립에 막후 역할을 했고 문체부의 지원 아래 사무총장직을 맡아 인사·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우수한 체육 영재를 조기선발·관리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시키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내세웠는데 신생법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삼성전자도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센터가 주관하는 빙상캠프 후원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 ‘안중범 공모’ 치열한 공방 최순실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3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조사하던 중 2일 밤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

안중범 피의자 심문서 “대통령이 재단 현안 직접 챙겼다” 진술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놓고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공범 및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심사에 출석했다.

1시간 30분가량 지난 오후 5시에 심문을 마치고 나온 최씨 변호인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쟁방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심사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마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주도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겨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이를 통해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두 재단 및 최씨가 실소유주인 더블루케이의 일부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챙겨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조사까지 안 수석은 박 대통령이 여러 공개 장소에서 두 재단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만큼 재단들이 잘 설립돼 운영하도록 돕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 생각해 두 재단의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다.

그러나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뿐 아니라 K스포츠재단이 롯데, SK, 부영, 포스코 등 기업들에 추가 기부를 요구하는 과정에 청와대 경제수석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깊숙이 개입하고 최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더블루케이의 사업 회의까지 참석했다는 취지로 이행을 한동기·배경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올해 2월 재단이 이종근 부영 회장을 만나 70억~80억 지원을 의논하는 자리에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기금을 쾌척하겠다고해서 세부조사 무마 청탁을 노골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폐막 이틀 앞으로

23만7천여명 관람...지난 행사보다 4만명 늘어 도슨트·봉사자 등 초청 6일 거시기홀서 폐막식



“제 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를 주제로 37개국 101명이 참여한 ‘2016 광주비엔날레’ 폐막(6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 250여점이 선보인 이번 비엔날레 본전시 관람객은 4일까지 약 23만 7000명으로 지난 행사 19만 7000여명보다 늘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나도 아티스트’(사진) 관람객 수까지 합치면 총 36만6000여명이 비엔날레를 즐겼다.

폐막식은 후원사, 도슨트, 자원봉사자, 행사요원, 시민 등 300여명을 초청해 6일 오후 6시30분 광주 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제·무등현대·우재길 미술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외부 전시장에도 작품을 설치하며 지역과 소통에 나선 게 특징이다.

본 전시관은 각 전시실별로 열대, 온대 등 서로 다른 기후 분위기로 꾸며, 특히 영상작품 위주로 구성된 2전시실은 지금까지 비엔날레와는 다른 구성으로 호응을 얻었다.

또 참여작가 아나가 이가 구겐하임 미술관이 수여하는 휴고보스상을, 요르단 작가 로렌스 아부 합단이 독일 미술상 ‘백남준 어워드’를 수상, 그들의 작품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품 전시와 함께 지난 3월부터 광주, 서울 등에서 지역 협업·교육 프로



젝트로 ‘월례회’, ‘인프라스쿨’, 포럼 등을 진행해온 재단은 4~6일 거시기홀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에서 마지막 인프라 스킵 프로그램 ‘인터 아시아 비엔날레 포럼’도 진행한다.

국내외 미술관 및 예술기관 참가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역사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사회적 운동과 움직임에 탐색한다.

참여자는 백남준 성공회대 교수, 천광신 대만국립교통대학 교수, 에카테리나 데갓 독일 쾰른 세계 예술아카데미 관계자 등이다.

그밖에 5일 오후 3시 비엔날레광장에서는 ‘나도 아티스트’ 행사의 하나로 문유미 작가가 비엔날레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펼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더 빠르고 안전한 행복의 길 **ex**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공광고 제2016-0064호

분묘개장공고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간 건설공사 편입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공고기간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임의로 개장처리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소 재 지	편입지번(원지번)	수량(기)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막동	산71-1(산71)	2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동	산2-4(산2)	5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동	870(870)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동	산4-3(산4-1)	3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901-54(901-30)	4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산145-10(산145-10)	5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산145-11(산145-1)	5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산145-11(산145-11)	1	

2. 개장사유 : 고속국도 제500호선 광주순환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2016. 11. 04 ~ 2017. 02. 03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신고장소 :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 건설사업단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5층 ☎ 062-720-5816-5818, FAX 062-720-5896)
※ 매장자와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입장서류 등) 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바랍니다.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분묘이장 및 이장보조비 지급)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 개장(화장후 봉안당 안치, ☎봉안장소 : 인허가된 납골당)
6. 기타 : 상기 공고기간내에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였으며, 상기 공고한 지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추가 발견되는 분묘 및 공사시행중에 추가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하여 임의개장 처리합니다.

2016년 11월 4일

한국도로공사 광주순환건설사업단장

등록번호: 전남-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 무등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 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 출강지도 가능
교정 노트

글씨교정 창업반 · 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